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순천 '카오스 로봇 사랑회'

어린이들이 꿈꾸는 로봇세상 만들어요

'어린이와 로봇이 친구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로봇 마니아들이 모였다. 순천에 본부를 둔 '카오스 로봇 사랑회'(www.srla.or.kr)다. 전남도 내 교사, 회사원, 엔지니어 등 100여명이 로봇 세상을 꿈꾸며 지난 2004년 4월 결성한 동호회다.

직업은 다양하지만, 회원 모두 어린이 시절부터 라디오나 시계 등 손에 잡히는 기계는 기어코 뜯어서 내부를 들여다보아 비로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평균 연령은 40대. 10~20대가 관치는 이 세계에서 완전 '늙은이' 취급을 받지만, 가장 어렵다는 '배틀로봇'(Battle Robot·전투형 로봇) 대회에

참가할 정도다.

이들이 로봇 동아리를 만든 것은 어린이들이 꿈꾸는 '로봇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다. 자신들이 어려울 때 가지고 놀던 '로봇 태권V'나 '짱개' '아뽀' 같은 장난감 로봇이 아니라, 진짜 움직이는 로봇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때문에 서영주(40)씨 같은 회원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사비를 들여 로봇 관련 세미나를 찾는다. 어린이들이 로봇을 만드는데 필요한 10만원과 전남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어린이들을 위한 로봇 교실도 연다. 이들은 지난 2005년 6월부터는 순천 황전초등학교와 사회

복지시설인 '성신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조립하기', '로봇 축구경기' 등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로봇교육을 나갈 때마다 교육용 로봇(개당 2만~2만5천원)을 50~70개를 준비해야하고, 각종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만 해도 150만~200만원이 넘게 들지만, 한 해도 쉬지 않았다.

'카오스 로봇 사랑회' 회장인 변환우(42) 순천제일대학 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어린이들이 로봇과 친구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만들고 가르쳐왔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카오스 로봇 사랑회'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이족보행로봇'을 점검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도 '로봇랜드사업' 유치 나서

정부가 추진 중인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도 뛰어들었다.

광주시는 오는 2009~2013년까지 모두 4천300억원을 투입해 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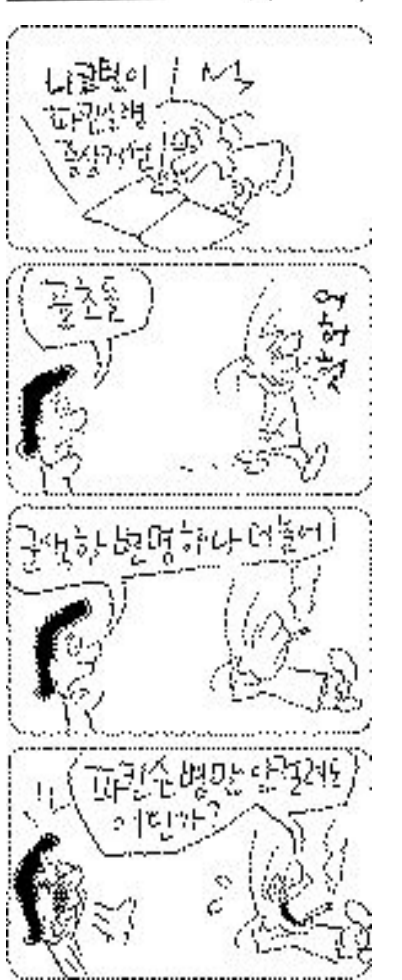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관광단지(273만㎡)에 로봇공연장·로봇갤러리·로봇식물원·로봇타워·로봇축구장 등을 설치하고, 10분 내외 거리에 있는 평동산업단지(331천㎡)에 로

봇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5년간 해남 화원관광단지(5백만㎡)에 9천687억원을 투입해 로봇전시장, 경기장, 교육관, 로봇물고래조각, 로봇 동·식물원 등 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나원침 (7342) 김장두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2007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실시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민·관·군·경 34개 긴급구조 기관이 참여해 1시간 동안 테러 대응, 화재진압, 통신망 복구 훈련을 실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주유소 '눈속임 가격판' 판친다

표지판 휘발유 1,544원 → 실제가는 1,599원

할인가를 정상가 처럼 속여... 단속은 전무

유가(油價)가 연일 치솟으면서 광주 시내 일부 주유소들이 할인가격을 마치 정상가인 것처럼 가격표지판을 세워와 운전자들의 눈을 속이는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운전자 속이는 가격 표지판=회사원 정모(30·광주시 서구 능성동)씨는 26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A주유소 가격 표지판에 써진 '휘발유 1,544원'을 보고 운전대를 돌렸다가 낭패를 봤다. 정씨는 다른 곳보다 싸다고 생각해 기본 종계 신용카드를 내렸지만 주유원이 돌려준 영수증에는 1ℓ 당 55원이나 더 비싼 '1천599원'으로

찍혀있었다.

이모(29·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지난 5일 서구 치평동 K주유소 가격 표지판을 보고 들어갔다가 차를 돌려 바로 나왔다. 가격표에 적힌 휘발유 가격은 1ℓ 당 1천599원, 이씨는 다행히 주유소에 들어가서야 '정상가격 1,588원'이라고 작은 글씨로 쓴 간판을 보고 속은 것을 알아챘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일부 주유소들이 경쟁적으로 카드할인 가격을 큰 글씨로 내걸어,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단속은 '전무'=불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은 제휴카드 할인가를 위

로 올리거나 정상가격인 것처럼 표시한 주유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식유관매입 등록권을 가진 시·군·구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주유소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토록 규정돼 있다.

올 들어 5개 구청이 주유소 가격표 시위반 등으로 적발한 건수는 단 1건, 지난해에도 2건을 단속하는데 그쳤다. 광주지역 주유소는 총 293개소로 ▲동구 20 ▲서구 46 ▲남구 40 ▲북구가 96 ▲광산구 91곳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주유소를 돌며 불법석유류 단속과 함께 가격표시 위반 사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현장시정 위주로 조치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복지시설 방화추정 불

440만원 상당 재산 피해

6일 새벽 1시52분께 광주시 북구 지아동 '에수 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 보일러실에서 불이나 내부 60여㎡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보일러실은 복지시설 본 건물과 1~2m 가량 떨어져 있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 화재를 일으킨만한 전기 시설 등을 없앴는데 내부 셔터에 누군 손이 없는데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방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확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 휴일

가을 나들이 제격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 청명한 가을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27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조금 끼는 화창한 날씨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저녁에는 기온이 5~14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20~23도까지 올라 한낮에

는 활동하기에 좋은 선선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또 "사리기간 때로 물살이 빠르고, 서해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휴일인 28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접어들면서 낮부터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은 전날보다 2~3도가량 떨어질 18~20도가 되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학대 피해아동

10명중 1명꼴
또 당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1명꼴로 또 다시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회 보건복지위 장항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3천891건, 2005년 4천633건, 2006년 5천202건 등으로 매년 늘면서 지난 3년 간 총 1만3천72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재신고된 재발건수는 2004년 12.8%(498건), 2005년 12.4%(574건), 2006년 13.1%(684건) 등이었다.

또 지난 3년 간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 사망한 아동은 34명이며, 아동학대로 재신고된 아동 중에서는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에 신고된 5천 202명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28.7%와 20.3%는 거의 매일, 또는 수시로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1천 명 당 아동학대 발생률은 강원 0.91명, 전남 0.78명, 전북 0.72명, 제주 0.69명순이었다. 광주도 0.50명으로 전국평균 0.48명을 웃돌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람잡는 경운기

수확철 농기계사고 급증
사망 80% 운전 부주의 탓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이 경운기 등 농기계를 사용하다 죽거나 다치는 등 농기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농기계 사망 사고의 10건 중 8건은 경운기를 운전하다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6시17분께 고흥군 도하면 덕중리 덕산마을 도로에서 마을주민 노모(82)씨가 경운기에 벼들을 싣고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 옆 2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이모(80)씨가 숨지고 노씨가 크게 다쳤다.

또 이날 오후 6시 57분께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에서 김모(44·광주시 동구 용산동)씨가 논에서 일을 하고 콤팩트를 운전해 나오던 중 콤팩트가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50분에는 장흥군 장평면 임리에서 선모(여·43)씨가 '베일러'(Baler·벼짚 묶는 농기계)로 벼짚을 묶다가 오른쪽팔이

벨트 사이에 끼어 부상을 입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 월 평균 농기계 사고 발생건수는 46건인데 반해, 수확기인 10월에는 94건으로 배에 달했다.

또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411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죽고 42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 사고의 79%인 15건은 경운기를 운전하다 발생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아동학대 논란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아동 복지시설 '광주 S'의 생활지도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S사 생활지도원 김모(여·27)씨 등 10명을 아동학대 혐의와 고발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4명의 원생들과 개별면담한 결과, 이들 지도원들이 아이들을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가 맞았다"는 원생 부모 A씨의 민원과 "지난 8월26일 원내 교회에서 초등 5학년~

고등 2학년 원생 15명이 지도사들에게 맞았다는 아동들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S사 원장의 주장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자체 조사를 했었다.

그러나 생활지도원들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발바닥을 때린 적은 있지만 학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도원들은 지난 9월 초순께 체벌 등의 이유로 전원 사표를 제출해 퇴사조치됐으나, 현재 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10일째 '원장 퇴진과 지도원 전원 복직'을 주장하며 농성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거녀 외손녀 성폭행

50대에 징역 5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6일 동거녀의 외손녀를 성폭행 혐의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3년 3월부터 A씨와 동거하던 중 같은 해 8월 A씨의 외손녀 B(당시 11세)양이 A씨의 보호를 받기 위해 집으로 온 뒤 같은 달부터 지난 6월까지 완도군 소안면 자신의 집에서 차를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며 택시 안에 남은 지문 때문에 증거가.

○경찰에서 K씨는 "어머니, 동생과 작은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버섯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서 "택시를 빼앗아 직접 영업을 해 돈을 벌 생각이었다"고 진술.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금속노조 FTA 파업

기아 광주지회장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해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장 손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6월 7일과 27일 근무시간에 노조 집회와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달 28일부터 이를 통한 한미 FTA 반대를 위한 부분파업을 벌여 회사가 217억여원의 생산차질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취직못한 20대 돈 벌려고 택시 훔쳐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을 못한 20대가 택시를 훔쳐 돈을 벌려다 경찰서행.

○서울 서초경찰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사람대를 졸업한 K(29)씨는 지난 17일 밤 10시께 서초구 내곡동 내곡IC 부근에서 운전사 강모(68)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K씨는 범행을 목격한 다른 택시가 추격해오자 서초구 양재동 주택가에서 차를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며 택시 안에 남은 지문 때문에 증거가.

○경찰에서 K씨는 "어머니, 동생과 작은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버섯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서 "택시를 빼앗아 직접 영업을 해 돈을 벌 생각이었다"고 진술.

/연환뉴스

가을의 여유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광주	구름 조금	10~22℃
목포	구름 조금	13~21℃
여수	구름 조금	14~21℃
안동	구름 조금	12~21℃
대구	구름 조금	8~23℃
해남	구름 조금	9~22℃
장흥	구름 조금	9~22℃
고흥	구름 조금	10~22℃
순천	구름 조금	8~22℃
영광	구름 조금	12~22℃
진안	구름 조금	13~23℃
전주	구름 조금	9~22℃
남원	구름 조금	7~22℃
홍성	구름 조금	14~18℃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2:14 썰물 < 07:39
목포 밀물 < 14:51 썰물 < 20:11
여수 밀물 < 09:37 썰물 < 03:08
여수 밀물 < 21:44 썰물 < 15:39

▲달출 06:48 ▲해질 17:44 ▲달몰 18:10 ▲달집 07:53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8(일)	29(월)	30(화)	31(수)	11(목)	2(금)
날씨						
최저/최고	11/19	9/17	8/18	7/17	6/17	5/14